

호남반도체 힘 실은 최태원...정부도 '속도전' 화답

〈SK그룹 회장〉

김정관 장관 광주 군공항 방문 공급 계획 살펴
부지 조기 공급 검토... 전력·용수 등 인프라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확인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살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반도체 공장의 조기 착공과 신속한 건설 의지를 밝힌 지 사흘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손경중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전은옥 통합특별시 반도체산업 지원정책관, 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대 관제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현황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업단지 공급 계획과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례로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어 관계기관과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과 부지 조기 공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더라도 반도체 공장 착공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대규모 평탄한 부지와 광주송정역 등 광역교통망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는 기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우선 검토 대상지로 단계적 부지 공급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서남권의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의 산업생태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2일 오후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영암군·HD현대상호·대아산업·대불경영자협의회·전남조선해양기자협회동조함과 'AI자율조선소 등대공장 구축 및 지역 조선업 AX 확산을 위한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남권 조선업, AI로 배 만드는 방식 바꾼다

정부·업계, 목포·영암에 2030년까지 5960억원 투입
대불 AI 조선소 등대공장...블록 조립·운송 공정 혁신
HD현대상호 기술 개발...전남광주·영암군 행정 지원

정부와 조선업계가 목포·영암 조선소의 생산 방식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바꾼다. 2030년까지 민간 자금 5960억원을 들여 선박 블록을 조립하고 옮기는 공정을 혁신한다.

HD현대상호와 대아산업이 대불자유무역지역에 세 공장을 세워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정부는 중소 협력사가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호텔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김정관 산업부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우송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조선·해운사, 기자제사, 대학·연구기관 등 100개 기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M.AX (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운항

선박에 집중했던 AI 전환을 배를 만드는 제조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포·영암은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공정의 혁신을 맡는다.

사업의 출발점은 대불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설 'AI 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이다. HD현대상호와 대아산업은 이날 공장 구축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암군, 전남조선해양기자협회동조함, 대불경영자협의회도 협약에 참여해 투자 이행과 지역 기업의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등대공장은 AI 기술을 실제 생산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주변 기업에 보급하는 거점이다. HD현대상호가 블록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실증 공장을 통해 성능을 확인한다. 대아산업은

HD현대상호와 함께 곡물류 조립 공정의 AI 기술을 개발한다.

블록 조립과 함께 공장 안에서 블록을 운송하고 생산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도 도입한다. HD한국조선해양이 자율 물류·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블록 운송과 생산 최적화를 지원한다. 개별 작업에 AI를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조립과 운송 등 공정 사이의 흐름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형 조선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대불산단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대아산업을 포함해 인근 9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유일·태진·오원·한국메이드 등 나머지 8개사는 HD현대상호와 대아산업의 실증 공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한다.

정부 지원도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핵심기업의 AI 전환 기술 개발에 1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후 기술을 이전 받은 협력사가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비 보급에 36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1960억원과 등대공장 민간 투자 4000억원을 합한 목포·영암 사업 규모는 총 5960억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암군은 정부 사업 유치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공장 구축과 투자 이행을 지원한다. 지역 조선업계 단체들은 회원사의 기술 도입 수요를 바탕으로 AI 생산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기술 개발을 맡는 대형사, 이를 도입할 협력사, 연구개발과 행정 지원을 담당할 정부·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우송희 영암군수는 "새로운 기술이 지역 기업의 생산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 유치와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HD현대상호의 대규모 투자는 조선산업의 AX를 지역 생태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서남권역을 조선·기자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광주 경제자유구역 넓혀 반도체 투자 확대

함평·장성 452만㎡ 추가 편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협력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함평·장성 산업단지 452만㎡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남은 용지가 부족한 만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수요에 대비해 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광주특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은 총 203만㎡ 규모로 분양률은 72%다. 남은 용지는

약 57만㎡로, 반도체 협력업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확대를 추진하는 곳은 빛그린산업단지 내 함평권역 222만㎡와 절단3지구 내 장성권역 230만㎡다. 두 지역을 합하면 452만㎡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의 두 배를 넘는다. 계획대로 편입되면 경제자유구역은 총 655만㎡로 확대된다.

시는 해당 시군과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산업통상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확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남일보·해피니스CC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관련기사 16면

제1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공헌 대축전

11월 10(화) 14:00

광남일보 아카데미홀

공모부문

- 사회공헌 공모
- :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
- 사회공헌 주제 표어 공모
- : 초·중·고생 중 사회공헌 및 봉사, 기부활동 관련 표어

결과발표

시 상 식

2026년 10월 19(월) 광남일보 지면 및 홈페이지

2026년 11월 10(화) 14:00 아카데미홀

주최 |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주관 | 광남일보 (사)광남문화체육재단

후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World Vision,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협찬 | 광주은행, SK telecom, GS칼텍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